

「홍길동전」의 설화화 양상

—「韓國口碑文學大系」에 채록된 홍길동이야기를 중심으로—

강 문 중*

차 례

1. 서론
2. 설화화의 문화적 징후들
3. 자료 검토
4. 「홍길동전」의 설화화 양상
 - 4.1. 절반의 서사화
 - 4.2. 卑下의 서사화
 - 4.3. 변신의 서사화
5. 「홍길동전」 설화화의 의미
6. 결론

1. 서론

기억이란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경험이 우리 안에 저장되는 것을 말한다. 전자인 경우 몸소 체험한 것이므로 기억에 대한 자신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후자인 경우 선별적으로 코드화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망각하기 하며, 다양한 방식과 양

*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상으로 변형되기도 한다. 따라서 독서과정과 같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기억되는 이야기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선별적인 요소들을 재구성하여 만들어지게 된다. 이야기하기는 세상을 모사하는 활동이기도 하고, 새로운 창조적 활동이기도 하며, 나아가 이야기의 대상에 대한 인식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소설이 이야기 되어 전승되는 양상은 이야기의 주체들이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는 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정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전승되는 것은 직접적인 경험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향유하는 문화적 현상의 영향을 받은 간접적인 경험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소설이 이야기화 되어 전승된다는 것은 바로 고소설을 향유하는 현장에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독자들이 기억한 후 이를 반복하여 구연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고소설을 향유하는 방식은 문자로 읽는 독서와 음성을 통해 접하게 되는 집단독서¹⁾의 형식, 그리고 매체 등을 통한 감상이 있다. 이렇게 접한 고소설의 내용들이 작품 외적인 상황들과 결합하여 변화과정을 거친 후 구연자에 의해 재구성되어 그 소설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이다.²⁾ 필자는 우리의 대표적인 고소설인 『洪吉童傳』이 독자들로 하여금 기억되고, 구연되어 설화화 되는 양상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 작품을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대하여 간단히 고찰하는 것을 이 글의 목적으로 한다.³⁾

이를 위해 필자는 『韓國口碑文學大系』⁴⁾에 채록된 8편의 『홍길동전』과 관련된 설화 중에 정강현 씨가 구연한 “『대계』5-1 보절면 설화6 『남을 골탕먹인 안동의 선비 홍길동』”과 오홍수 씨가 구연한 “『대계』6-10 능주읍

1) 특정인이 소설을 읽어주고 주위에 물려 듣는 형태를 ‘집단독서’라고 표현했다.

2) “구술문화 특유의 기억형성은 어떠한 경우라도 사회의 직접적인 압력에 의해서 변용된다.” 이기우·임명진 옮김, 윌터 J. 웅 지음,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文藝出版社, 1995, p106.

3) 이 논의에서 소설과 설화라는 장르의 특징을 다루기보다는 『홍길동전』이 설화화되면서 나타나는 서사적 특징과 그 이야기의 수용 양상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4) 이후 ‘『대계』’로 지칭.

설화19 「홍길동이야기」는 소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어 다루지 않기로 했다. 그 외에 확실히 소설에서 파생되었다고 여겨지는 6편의 이야기를 선택했으며, 고소설은 완판본 「홍길동전」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대계」에 채록된 이야기의 내용이 이본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홍길동전」의 내용들이고, 자료의 접근성을 감안한 결과다.⁵⁾

「洪吉童傳」에 대한 연구는 이 작품이 文學史에서 갖는 위치로 인해 많이 이루어졌다.⁶⁾ 이 중에서 필자가 주목한 연구는 권순궁·조희웅·송성욱의 연구다. 우선 권순궁⁷⁾은 京板과 完板 「洪吉童傳」을 비교하면서 前者인 경우는 신분제에 起因한 적서차별이 중요하게 드러나고 後者は 경제적 수탈에 대항하는 활빈당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면서 이 작품의 독자층을 밝히고 나서 文獻說話와 口碑說話의 관계를 고찰했다. 조희웅은 「靑丘永言」과 「東野彙集」에 실려 있는 문헌 설화와 「홍길동전」을 다루면서 ‘小説→說話’의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며⁸⁾, 송성욱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뤘다.⁹⁾ 그는 「홍길동전」을 중심으로 文獻說話와 小説, 문헌 설화와 口碑說話, 구비설화와 소설 등의 관계를 고찰하면서 종합적으로 ‘사실→소설→구비설화’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선학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우선 「홍길동전」을 포함

-
- 5) 「洪吉童傳」 연구에 있어서 자주 인용되는 文獻說話는 제외시켰다. 이유는 첫째 이 글의 주된 목적이 소설이 설화화 되는 과정과 양상이 논의에 중심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판단되었다. 둘째는 문헌설화가 口傳되는 원형을 그대로 기록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설과의 先後關係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 6) 이 작품에 대한 연구사 정리는 이문규의 「홍길동전」을 참고하기 바란다.李文奎, 「洪吉童傳」, 「黃湜江 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Ⅱ 古典小説研究」, 一志社, 1993.
- 7) 권순궁, 「「洪吉童傳」의 受容樣相과 時代的 意味」, 成均館大學校 國語國文學科 碩士論文, 1983.
- 8) 조희웅, 「조선후기 문헌설화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1, pp103~106.
- 9) 송성욱, 「「홍길동전」의 磁場」, 「聖心語文論集」 22집, 카톨릭대학교 國語國文學科, 2000.에서 ‘사실→소설→구비설화’라는 도식으로 「洪吉童傳」을 다루고 있어 이제까지의 연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는 이제까지 ‘설화→소설’이라는 일방적인 방향성에만 고정되었던 시각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한 소설이 설화화 될 수 있었던 문화적 맥락을 간단하게 검토할 것이다. 이어 자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정리를 한 후 설화화 되어 가는 과정 및 양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 연구가 예상대로 이루어진다면 근현대 한국인들이 「홍길동전」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설화화의 문화적 징후들

이야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口傳에 있다. 즉 구술로 구연됨을 말한다. 이러한 특징은 기록문학에서 찾을 수 없는 부분이다. 문자화된 문학작품이 설화화 되는 것은 수용자들이 읽거나 듣고서 그 내용을 암기한 후 그대로 구연하는 것이 아니다. 구연된 설화들이 소설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러므로 소설이 설화화 되는 과정은 그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혹은 특정 부분의 기억을 확대 재생산하여 새롭게 구성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소설을 향유하는 몇 가지 문화적 현상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소설 독자의 꾸준한 증가로 볼 수 있다.

蔡濟恭(1720~1799)은 당시 부녀자들이 패설을 숭상함이 날로 더해가고 있으며, 그 종류가 천백 가지에 이르렀고, 승가에서는 이를 깨끗하게 필사하여 세책업을 하는데, 부녀자들이 패물을 팔기도 하고 빚을 지기도 하면서 소설을 다투어 빌려 읽는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이미 18세기부터 독자층의 급증을 예상할 수 있다. 「요로원야화기」에서 역시 충남지역 村中에서 古談을 박람하는 행위들이 횡횡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본다면 고소설 독자층의 급증은 비단 서울에서만 현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방각본 출판이 전주를 중심으로 매우 성행했다는 사실 역시 소설의 독자층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세책업

의 성행과 방각본의 출판을 지나 상업성이 유일한 목적이었던 구활자본 출판 시대에 들어오면서도 고소설이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은 근대에까지 고소설의 독자층이 줄어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둘째, 소설의 오락화를 통한 구전 유통이다.

판소리의 유행을 비롯하여 종로에서 소설을 구연하는 현장에서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부녀자들을 찾아다니며 소설을 읽어주는 직업이 성행했다는 사실¹⁰⁾은 소설이 독서물을 넘어 오락의 수준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야담운동 및 만담을 통해 볼 때 일제시대까지 이러한 경향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구활자본 고소설의 상업화 속에서 책을 팔기 위한 작품의 구연 현상이다.

이는 주로 일제시대에 유행했던 문화적 현상이다.

거기에는 허줄한 사나이가 가스등을 앞에 놓고 앉아 있었으며, 그 사나이는 무슨 책을 펴 들고 고래고래 소리 높여 읽고 있었다. 그 사나이 앞, 가스등 아래에도 그런 책들이 무질서하게 널려 있었다. 울긋불긋 악물스러운 빛깔로 그려진 서툰 그림을 그린 표지 우에 ‘신소설’이라 박혀 있고 그 아래에 소설 제명이 보다 큰 글자로 박혀 있었다. 그 사나이는 이 소설을 팔러 나온 것이며 그리하여 밤마다 목청을 뽑아가며 신소설을 낭송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나이의 주위에는 허줄하게 차린 사람들이 언제나 뺨 둘러 있었다. 얼른 보아 내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인력거꾼, 행랑어멈 같은 뒷골목 사람들이었다. 거기에는 젊은 여인의 얼굴도 띄엄띄엄 섞여 있었다. 가운데 앉은 사나이가 신이 나서 점점 목청을 뽑을수록 사람들은 귀담아 듣느라고 숨소리를 죽였다. ……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의 설움과 비슷한 것들이 적지 않게 적혀있는 것이다. (중략) 그들은 소설에 그려져 있는 것보다 더한 비극이 앞날에 자기들에게로 달려들 것을 방불히 내다보는 듯이 마침내 어떤 아

10) 林榮澤, 「18세기 「이야기꾼」과 小說의 發達」, 『韓國學論集』 2, 啓明大學校, 韓國學研究所, 1975.에서 자세히 다뤘고, 그 이후 이야기꾼을 설명하면서 제시되는 자료들이 모두 이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고소설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내용이므로 자료를 비롯한 각종 연구를 생략하고자 한다.

낙네는 흑흑 느껴 울기 시작했다. (중략)…… 신소설 장사치들은 동대문계 다리 밑에서 시작하여 종로 쪽 다리 밑으로 이동하면서 밤마다 소설 낭송을 했다.(한설야, 『나의 작가수업』 7)¹¹⁾

위의 예문은 한설야가 1915~1917년 사이에 서울 경성고보를 다닐 때의 경험담이다.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집단적인 독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수단엔 문자가 아니라 口演이다. 책장사가 책을 팔기 위한 행위이지만 이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 이야기에 빠져 자신도 모르게 소설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인 무리들의 구성원들을 보면 계층이 다양하다. 그 중 인력거꾼, 행랑어멈 등으로 묘사되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文盲率¹²⁾에 비추어 볼 때 文字解讀 능력이 없는 계층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장사꾼들이 팔기 위해 가지고 다니던 책의 묘사를 보면 딱지본임에 틀림없다. 이 딱지본은 주지하듯이 新小說뿐만 아니라 古小說이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설의 口演은 비단 신소설에만 그치지 않았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지방으로의 소설 유통은 대개 행상들에 의해 판매되었다.¹³⁾ 이러

11)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도서출판 푸른역사, 2003, pp114~115.에서 재인용.

12) 『동아일보』 1921. 04. 13일자, 1925. 12. 20일자, 1927. 01. 04일자, 1928. 03. 17일자, 1928. 05. 21일자를 정리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도별	문맹률
1921	99%
1922	99%
1925	절대다수
1927	대다수
1928	90%
1928	80%이상
1928	아동의 70%

노영택, 「日帝時期的 文盲率 推移」, 『韓國史館論叢』 51집, 國史編纂委員會, 1994, p125.

13) 그런데 前記와 같이 다수한 부수가 서적시장에 소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책들은 어떤 기관을 통하여 흩어지는가 하면 오로지 시골 장 북점장사 1천 45백 명 손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옥편과 춘향전 제일』, 『삼천리』(1935년 6월) 천정환의 앞의 책 p70. 재인용.

한 행상들이 지방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판을 벌려 책을 팔았는데, 이때 역시 집단독서가 구연의 형태로 일어났으리라는 것은 위의 예를 통해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무려 1400~1500이나 되는 붓짐장사들이 서적을 유통시켰다면 전국 곳곳에 전파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이처럼 舊活字本 古小説은 서울과 경기지방을 벗어나 전국 곳곳에 전해졌으며, 독자들은 직접 읽었거나 혹은 구연의 현장에서 고소설을 접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의 문맹률¹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오히려 구연의 현장을 통해 고소설을 감상했을 가능성이 독서행위를 통해 감상한 것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넷째, 라디오라는 대중매체를 통해 나타나는 고소설의 구연 현상이다.

구술의 문화적 배경은 과학의 힘에 의해 탄생된 대중매체(라디오)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즉 고소설이 새롭게 개발된 매스컴에 의해 전파된 것이다. 저자거리에서 소설의 구연을 직업으로 했던 傳奇叟를 대신해서 음성배우¹⁵⁾들이 라디오를 통해 소설을 낭독했다.¹⁶⁾

14) 조선총독부가 조사한 전국 문맹률이다. 노영택의 위의 논문 p131.

도 별	한국인 총 인구			문맹자의 백분비			순위
	총 수	남	여	총비	남비	여	
경기도	2,004,012	1,025,990	987,022	70.69	57.59	84.44	2
충 북	890,877	458,082	432,795	80.92	70.24	92.22	11
충 남	1,356,942	695,534	661,408	78.31	66.83	90.38	7
전 북	1,467,604	757,469	710,135	78.92	67.26	91.36	8
전 남	2,288,429	1,147,527	1,140,902	80.10	66.17	94.11	10
경 북	2,373,856	1,197,616	1,176,240	83.19	74.76	91.78	13
경 남	2,045,113	1,027,906	1,017,207	82.97	72.29	93.76	12
강원도	1,473,972	770,104	703,868	79.99	66.68	94.55	9
황해도	1,499,643	755,210	744,433	75.12	57.23	93.27	4
평 북	151,9037	769,836	749,201	73.16	53.94	92.92	3
평 남	1,288,804	646,987	541,817	69.91	50.04	89.94	1
합 북	701,844	361,317	340,527	75.13	57.35	94.00	
합 남	1,527,975	785,311	742,664	77.15	59.89	95.41	6
총 계	20,438,108	10,398,889	10,032,219	77.73	63.92	92.04	

15) 음성배우라는 말은 필자가 라디오에서 각종 대본 혹은 소설을 연기의 형식을 구연하는 사람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다.

이원주(1975)의 연구 당시 조사 대상자들이 모두 여성이며 이들은 慶北 地方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대상자들이 1930년대에는 모두 20~40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¹⁷⁾ 그런데 '각주 15'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경북지방의 당시 여성 문맹률은 무려 91.78%에 달한다. 문자를 해독할 수 있던 여성들은 주로 사대부가의 여인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이들은 「홍길동전」과 같은 傳類의 소설은 읽지 않았거나 읽었다라도 관심 밖에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傳들은 대개 일반민들 사이에 주로 읽혔다는 말이 된다. 당시 문맹율을 참고한다면 문자를 해독할 수 없는 사람들 역시 소설을 감상했다는 말인데, 이는 바로 소설이 집단독서의 형태로 이루어졌음을 반증해 준다.

이처럼 소설이 구연될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있었으며, 소설을 접하는 사람들은 직접 독서를 하기도 했지만, 위에서 살펴본 구연의 현장에서 감상했음을 알 수 있다. 소설이 구전유통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던 문화적 환경은 소설이 설화화 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3. 자료 검토

검토할 자료들은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중반에 채록된 것이다. 당시 제보자들은 대개 60대에서 80대 초반의 나이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채록 당시 '이 이야기는 제보자가 어렸을 때 들었다고 한다.'라는 채록자의 설명과 '거 낭설로 기자 땡기명(다니면서) 들은 겁주'(들은 것이지요)

16) 문예봉: 누구의 소설을 좋아 읽으십니까.

심 영: 이태준씨 단편을 읽고 좋아서 라디오에서 소설낭독도 많이 했습니다.

-「대담: 명우 문예봉과 심영」, 『삼천리』(1938년 8월)

17) 이원주, 「고전소설 독자의 성향: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3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75.에서 언급된 당시 조사대상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88세이며 가장 어린 사람은 61세였다.

라는 구연자의 언급, 그리고 제보자 중에 책에서 읽은 이야기라고 밝힌 부분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므로 제보자들이 이해한 이야기의 형태가 구술의 형태와 독서를 통해 기억했던 이야기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 「홍길동이야기」(1-2, 178,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지내리, 1979.8.7. 박치조, 남, 74세)

구연자 : 박치조

지리내 태생이고 본관은 밀양이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배운 것은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언급으로 보아 문자 해독이 없음을 알 수 있다.

- ①홍길동이 소설의 몸에서 태어남.
- ②식구들에게 무시를 당하자 공부를 해서 취직을 하려고 했으나 서자라는 이유로 불가능했음.
- ③공부를 같이 하던 부하들을 데리고 해인사와 같은 큰 절을 털어 살아감.
- ④국가에서 홍길동을 잡아들이라는 방을 붙임.
- ⑤홍길동이 팔도에 한 명씩 변신하여 나타나자 여덟 명의 홍길동 중 진짜를 몰라 죽이지 못함.
- ⑥계속해서 잡았으나 죽이지 못하자 할 수 없이 울릉도로 보냄.

길동이 소설의 자식이고, 부하를 데리고 해인사를 털어서 생활한 것, 그리고 八道에 각각 한 사람의 홍길동이 변신하여 잡혀 올라와 구별을 못하게 하는 장면 등이 나타난다. 조금씩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지만 결말에서 가장 큰 변형이 보인다.

㉡ 「별 홍길동」(1-7, 838, 경기도 강화군 양도면 삼흥 2리, 1981.8.11. 윤태선, 남, 62세)

구연자 : 윤태선.

13대째 산문(삼흥 2리 마을 이름)에 살고 있다. 18세에서 광복 직후까지 만주에 있었다. 제공한 자료는 거의 고향을 떠나기 전에 이 고장에서 들은 것들이라고 한다.

- ①홍길동이 활을 아주 잘 쏘.
- ②홍길동전을 언급함.
- ③홍길동이 금강산 합조대사에게서 도술을 배움.
- ④파리 30여 마리로 변해서 잡는 파리마다 자신이 홍길동이라고 함.
- ⑤활빈당을 조직해서 이 백여 명이 모두 홍길동 노릇을 함.
- ⑥이쁜이를 만남.
- ⑦이쁜이 아버지가 이 백 냥을 요구하자 그를 잡아 가둬 버림.
- ⑧이쁜이도 합조대사에게 도술을 배움.
- ⑨이쁜이도 홍길동을 도와 활빈당과 함께 마을 터니 사람들이 잡을 수가 없었음.

홍길동이라는 인물의 등장과 활빈당을 조직한 것을 제외하면 『洪吉童傳』과는 아주 큰 차이점들이 보인다. 그 이유는 위의 내용이 고소설 『홍길동전』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정비석이 1964년에 지은 소설인 『홍길동전』의 내용과 흡사하다. 그러나 일제시대 만주로 떠나기 전에 들었다는 언급과 제보자가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홍길동에는 그리구 홍길동전이 또 있어. 거 쪼끄만 요런요런 책¹⁸⁾에 그거는 뭐…….”¹⁹⁾라는 언급이 있는 것으로 봐서 분명 딱지본 형태의 고소설 『홍길동전』을 읽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고소설 『홍길동전』의 원형과 정비석의 작품인 현대소설 『홍길동전』을 동일시하여 홍길동이야기로 재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 『홍길동이야기』(1-8, 162, 인천시 북구 경서동, 1982.8.17. 노정봉, 남, 76세)

구연자: 노정봉.

생업은 농업이고 선조는 시천동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이주해서 4대째 살고 있다. 노화로 인해 자식들에게 농사일을 물려주고 담화로 소일하는 것이

18) 묘사에서 딱지본임을 암시하고 있다.

19) 『대계』1-7, p838.

당시 가장 즐거운 일이었다. 어린 시절 거지 생활 등 고생을 하였다. 동네 노인들을 따라다니면서 덕담하는 것도 배웠다고 한다. 말년에 책도 꽤 읽어 아는 얘기도 많이 있었다고 언급한다.

- ①신라왕조에 홍좌수가 낮잠을 자다가 해가 입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얻음.
- ②본 부인의 반대(대낮부터 상스럽다는)로 종과 관계를 가짐.
- ③종은 종노릇을 그만두고 따로 살림을 차려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허락 해줌.
- ④그 달부터 태기가 있어 열 달만에 길동을 낳음.
- ⑤등에 일곱 개의 별이 박혔으며, 본 부인의 자식보다 월등하게 뛰어남.
- ⑥제사를 지낼 때 마루 아래서 지내게 하고, 호부호형하지 못함에 불만을 품고 배신함.
- ⑦빌어먹는 사람들 삼백 명을 모아서 부하로 삼고 도둑질을 하면서 다님.
- ⑧도둑질한 것들을 무기를 구입하고 남으면 백성들에게 나눠줌.
- ⑨각 도 각 읍 마다 곡식창고를 도둑 맞고, 심지어 해인사까지 털어 버림.
- ⑩상소가 수없이 올라오자 홍좌수를 잡아다가 아들(홍길동)을 잡으라고 했으나 잡을 수가 없었음.
- ⑪홍좌수가 홍길동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방을 붙이자 각 도에서 모두 홍길동이라고 하면서 자수하자 진짜 홍길동을 찾을 수 없어서 잡지 못함.
- ⑫그러자 홍좌수를 정말 죽이겠다는 방을 붙이자 홍길동이 자수를 함.
- ⑬왕이 왜 좌수의 아들로서 도적이 되었냐는 질문에 종의 자식도 자식인데 호부호형을 못하고 제사를 지낼 때 마루 아래서 지내야 하는 등 사람취급을 못 받아서 할 수 없이 도둑의 괴수 되었다고 함.
- ⑭왕은 홍좌수가 잘못해서 도적을 만들었다고 나무라면서 홍길동에게 벼슬을 줌.

時代 背景이 新羅時代로 올라간 것을 제외하고는 「洪吉童傳」의 내용과 매우 비슷하다. 특히 길동의 탄생담과 신체에 일곱 개의 별이 있는 것, 해인사를 털고 많은 곡식창고를 털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행위 등이 소설과 매우 흡사하다.

제보자가 자기는 젊어서 많은 책을 보아 왔지만 지금은 많이 잊어버려서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은 방송에도 많이 나왔다고 하며, 이야기하기를 꺼리다가 조사자가 자꾸 부탁을 하니 할 수 없다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이다.²⁰⁾

위의 인용문은 採錄 당시의 상황을 서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소설 『洪吉童傳』의 독서뿐만 아니라 방송매체를 통해 홍길동에 관한 이야기를 접했으며, 그 중에 기억하게 된 부분들을 구연한 것이다.

④ 「홍길동의 행적」(7-3, 597, 경북 경주시 성동 경로당, 1979.12.1 김석만, 남, 77세)

구연자: 김석만.

원래 고향은 충남 아산인데 경주로 이사 왔으며, 경주 관광 안내원을 40년 동안 했다. 어려서 글방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한다.

①홍길사와 그의 종 사이에서 홍길동이 태어남.

②호부호형하지 못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가출하려 할 때 홍길사가 호부를 허락해줌.

③깊은 산 속에 있는 토굴로 들어가서 들들 들기를 통해서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됨.

④있는 자의 재물을 빼앗아 없는 사람들을 도와줌.

⑤고을 원님이 수배하자 스스로 잡혀줌.

⑥처벌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술 한 동이와 닭 한 마리를 부탁하자 들어줌.

⑦술을 다 마시고 동이 속에 숨어버림.

⑧동이를 깨자 여덟 조각이 나고 모두 자기가 길동이라고 하자 잡을 수가 없었음.

⑨길사를 잡아서 홍길동을 잡으라고 하자 길동은 천상의 재주가 있어서 잡을 수가 없다고 하자 옥에 가뒀 버림.

20) 『대계』1-8, p162.

⑩길동이 호부호형을 허락해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해서 왕을 찾아가서 홍길사를 놓아주면 절대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홍길사를 풀어줌.

⑪왕에게 자신이 한 짓은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 없는 자를 도왔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운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이 짓을 계속하겠다고 함.

⑫왕이 나쁜 짓임을 알고는 있지만 욕심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이를 허락해줌.

⑬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계속함.

⑭왕을 찾아가 술을 같이 마시고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개과천선함.

부자의 財物을 빼앗고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야기가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결말 부분을 비롯하여 심한 변형이 보이고 있다.

◎ 「홍길동」(9-1, 66,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면 서김령리, 1979.3.25. 안용인, 남, 74)

구연자: 안용인.

7세에 서당에서 한문을 공부했고, 12세에 일본으로 건너가 노동생활을 하다 선원이 되어 무역선을 타서 동양은 물론 파나마 운하까지도 갔다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본인이 이야기하는 설화는 주로 선원생활을 할 때 각처에서 들은 것이 많다고 한다. 특히 자신이 구연하는 이야기가 모두 사실임을 강조한다. 또한 신화, 전설, 민담 등을 모두 '고담'이라는 용어로 이해하고 있다.

①홍길동은 첩의 자식이다.

②본처가 시기하여 죽이려고 함.

③무술만 연마함.

④집에서 도망가다가 호랑이를 만나 등에 타고(내리면 죽을 것 같아서 그냥 계속 타고 감) 가다가 법장대사에게 구출됨.

⑤법장대사가 어디를 가느냐고 묻자 무술을 연마하려 산으로 간다고 하기에 활쏘기로 시험을 하고 나서 제자로 받들임.

⑥무술과 둔갑법을 모두 배우고 하산함.

- ⑦부자집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줌.
- ⑧정부에서는 이것을 역적이라고 해서 잡으려고 함.
- ⑨잡을 때마다 자신이 홍길동이라고 하며 여러 명의 홍길동이 등장하고 온갖 둔갑술로 재주를 부리자 잡을 수가 없음.
- ⑩둔갑하여 중국 어느 섬에 가서 왕노릇함.

이 이야기에서는 홍길동이 훗의 자식이라는 것과 그를 잡으려고 할 때 여러 명의 홍길동으로 변해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이 강조되고 있다.

강감찬의 이야기를 할 때 둔갑을 했던 인물로 강감찬이가 있고 또 홍길동 이도 있다고 제보자가 말함으로 이어서 홍길동의 둔갑에 대한 이야기를 들 기로 했다.²¹⁾

위의 인용문은 이야기가 採錄될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부분이다. 『洪吉童傳』에서 제보자가 주된 관심사를 가지고 취했던 부분이 바로 주인공의 變身術 부분임을 알게 해 준다.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마치자 “어디 서울 서 들으십데가?”라는 질문에 “엇수다. 거 낭설로 기자 텡기명 들은겁주”²²⁾ 라는 대답을 한 것으로 봐서 소설의 내용이 이야기의 형태로 전해지고 있었음을 알게 해 준다.

① 『홍길동』(9-3, 718,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 1981.7.17. 이화옥, 여, 80세)

구연자: 이화옥.

이야기를 즐겨하며, 시작하면 밤이 새도록 한다고 스스로 말하기도 한다. 동네에서도 그런 이야기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심방²³⁾들의 서사무 가는 물론 옛 소설들까지 기억하여 구술할 정도로 이야기 능력이 뛰어났다.

21) 『대계』9-1, p66.

22) 위 책, p69. “어디 서울에서 들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낭설로 그저 다니면서 들은 것이지요.”

23) 심방 : 무당을 이르는 제주방언.

- ①홍판서가 낮잠을 자다가 해가 입으로 들어오는 꿈을 얻음.
- ②부인에게 가서 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첩에게 가서 관계를 갖고 홍길동을 낳음.
- ③본 부인에게서 낳으면 양반이 되었을 텐데 첩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깡패가 됨.
- ④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면서 국가를 어지럽힘.
- ⑤홍길동을 잡으려고 하면 검불로 자신의 몸을 만들어 팔도에 모두 홍길동이 등장함.
- ⑥홍판서를 통해 잡으라고 해도 실패함.
- ⑦모기로 변해서 목침구멍에 들어갔을 때 구멍을 막아버리자 죽음.

길동이 태어나게 된 상황을 제외하면 아주 많은 변화가 보인다. 특히 길동의 行蹟을 깡패의 행위로 묘사하면서 否定的인 면이 강조되고 있다. “이건 옛날에 다 책으로 본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때 독서 과정에서 기억한 부분을 구현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자료 검토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홍길동이야기’는 독서의 결과로 기억하고 있는 부분을 구현하는 경우와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듣고 기억한 내용 그리고 방송 매체를 통해 접한 내용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설화화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4. 「홍길동전」의 설화화 양상

41. 절반의 서사화

주지하듯이 「홍길동전」의 전반부는 비판과 풍자의 서사라면 후반부로 들어서면서 영웅성을 담보한 거부와 건국의 서사로 바뀐다. 탄생담을 통해 주인공의 영웅성을 담보하고,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영웅이 거쳐야 할

고난의 길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영웅소설의 주인공은 태몽을 통해 천상의 고귀함과 훌륭한 가문에서의 출생으로 현실적 혈통의 우수함을 강조하면서 완전무결한 인간으로 태어난다. 그러므로 영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고난은 가족들과의 분리를 통해 나타난다. 이에 비해 「홍길동전」에서 길동은 천상의 고귀함은 확보했으나 첩의 몸에서 태어남을 통해 혈통의 우수성을 배제시킨다. 따라서 가족들과의 분리는 고난으로 가는 관문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신분의 미천함으로 인해 벌어지는 가족 내에서의 갈등과 주인공이 겪는 내적 갈등이 더 큰 문제가 된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이 작품의 사회성이 드러나게 되고, 이는 바로 신분제의 모순을 드러내는 비판의 서사로 발전하게 된다.

㉔ 「홍길동전」 전반부의 내용을 많이 수용한다. 길동이 울릉도로 보내지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㉕ 「홍길동전」의 전반부를 조금 수용한다. 길동의 능력을 언급하면서 도술을 익힌 후 변신술을 활용하면서 활빈당 활동을 하는 부분까지 등장한다.

㉖ 「홍길동전」 전반부의 대부분 내용을 수용한다. 왕이 길동에게 벼슬을 주는 부분까지 등장 한다.

㉗ 「홍길동전」의 전반부를 어느 정도 수용한다. 변신술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길동이 개과천선하여 왕과 화해하는 장면까지 등장한다.

㉘ 「홍길동전」의 전반부를 조금 수용한다. 길동이 도술을 익히고 변신술을 활용하여 도적 생활을 하던 중 중국 어느 섬으로 가 왕노릇 했다는 언급으로 끝을 맺는다.

㉙ 「홍길동전」의 전반부를 조금 수용한다. 탄생담은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이후 변신술을 활용하여 깡패생활을 하다가 모기로 변했을 때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까지 등장한다.²⁴⁾

위의 정리와 자료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내용상의 변화가 드러난다. 그러나 공통점은 대부분의 내용이 「홍길동전」 전반

24) 수용 정도는 “조금 < 어느 정도 < 많이 < 대부분” 용어로 정리함.

부만을 수용했다는 사실이다. 후반부의 주된 내용인 “조선을 거부하고 떠나 성도에 이르러 건국하는 이야기”, “을동을 물리치고 배필을 얻는 과정”, “울도국을 정벌하여 새로운 세상을 여는 부분” 등의 후반부는 완전히 생략된다.

아 영 죽을 수 없거든. ‘하 이거 죽일 수가 없다’ 그레가주구 나라에서 이 울릉도 그때는 울릉도가 그러니깐 그저 뭐 울릉도 왕으로 보냈단가 그 때 도저 사로 보냈던 모양이지. 그레 울릉도로 갔어요. 길동이가. [웃음] (㉔ 끝 부분)

중국 어느 섬에, 중국 가가지고 왕 노릇 하여십주.(㉕ 끝 부분)

㉔이야기와 ㉕이야기에서는 위와 같이 울도국 화소의 영향을 받은 듯한 언급이 간단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홍길동전」의 건국담과는 층위가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㉔에서는 변신술로 인해 도저히 죽일 수가 없으므로 울릉도로 보낸 것이지 「홍길동전」의 내용처럼 병조판서에 임명해도 이를 거부하고 새로운 세상을 찾아 떠나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㉕인 경우 홍길동의 변신술에 대해 이야기를 모두 마치고 강감찬 장군의 변신담과 동등한 위치에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자, 조사자가 「홍길동전」의 내용을 상기시키기 위해 “나중에 조선 떠나그네(떠나서) 홍길동이 어느 섬에 가났쟁(나갔다고) 홉데까?”라는 질문에 위와 같은 대답을 한 것이다. 이어 다시 “예, 왕 노릇 하기 전에다가 저기 여자들 구해 준 이애기가 이십주 예.”라고 다시 소설의 내용을 상기시켰으나 구연자의 대답은 “건(그것은) 모르쿠다.(모르겠습니다.)”라고 답을 한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해 본다면 홍길동이야기의 구연자들에게 「홍길동전」의 후반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거나 인식 자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즉, ‘서자로서 갖는 신분의 차별의식’·‘해인사 털이’·‘탐관오리 재물 훔치기’·‘지방 관아의 습격’·‘왕을 희롱하기’ 등은 각 각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신분제’·‘종교의 몰신화’·‘권력과 부정부패의 결합’·‘백성들과는 동떨어진 지방관청’·‘국가의 정체성’ 등을 비판하는 풍

자의 서사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홍길동전」의 전반부에 자주 등장하는 주인공의 변신술과 결합하여 설화화 과정에서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선을 떠나 섬으로 가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 망당산에 약초를 캐러 갔다가 울동을 물리치고 여자들을 구한 후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이야기, 울도국 정벌 등 영웅성을 바탕으로 한 거부와 건국의 서사는 설화화 과정에서 모두 사라진다. 이처럼 원 작품의 서사 중 절반이 생략되었다는 사실은 보통사람들이 「홍길동전」을 전반부의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²⁵⁾

4.2. 卑下의 서사화

㉠의 이야기는 “홍길동이 첩의 몸에서 출생→강패로 성장 및 강패 생활→모기로 변신 후 죽음”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홍길동전」의 많은 부분이 생략된 채 단순화 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탄생담과 草人으로의 변신담은 소설의 내용과 거의 흡사할 정도로 다뤄지고 있으며, 「홍길동전」에는 등장하지 않는 모기로의 변신담이 추가되어 나타난다. 결국 이 이야기는 주인공의 탄생담과 두 개의 변신담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소설 속의 신이한 탄생담을 완벽하게 수용한 후 주인공의 천박함을 강조하고 있다.

㉠ 홍관서렌 혼 사름이 잇는디 홍길동이 아방도 처음 경헤난 사름이주게.
홍관관이렌 혼 사름이 해낮이 누원 즘을 자당보난, 이제 해가 입더레 오랑

25) 필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홍길동전」의 내용에 대해 물었을 때 고소설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모두 전반부의 내용만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문헌과 해석」의 발표 현장에서 역시 동일한 현상을 관찰하였다. 이는 정비석의 「홍길동전」에서 역시 동일하게 나타난다. 2009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역시 「홍길동전」은 전반부 내용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막 기여들어부런. 몽에 꿈에 영호난 아이고 이것 이런 대몽을 봐져시니 이제 마누라안티 강 진짜 아덜을 생기젠. 영헨 손을 막고 흥판관이렌 혼 사름 이 그 이녀 자기네 마누라안틸 갔게. 이 해가 입더래 기여드러되난 그걸 나 오라불카부텐 딱 손으로 입을 막고 행 마누라안티 가네 이제 그 아덜을 생기젠 호난, 마누란 경 대감 되는 양반이 게민 택일에 아무런 택일 없이 이제 그런 아덜을 생김니까고 거절을 헨 나갑센. 영호난 그거 털어져불카부텐 또 로 잔뜩 그 해 기여드러빈 걸 막아가지고 종년 안티 갔주게 종년안티 가네 아덜을 생기나네 홍길동이렌 호드랍니다.(「대계」 9-3 719쪽)

언어를 제주도 방언으로 하고 전체를 간단히 요약한 수준으로 완벽하게 소설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고소설에서의 탄생담은 주로 신이한 존재와 영웅으로서의 자질을 타고 태어남을 보여주기 위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에서 탄생담을 자세히 다룬 이유는 다른데 있어 보인다. 즉 ‘해’와 흥판서의 혈통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고 ‘첩’의 몸에서 태어난 것을 드러내고 강조하기 위함이다.

㉠ 꺽패가 되부런. 진짜 마누랄 나시른 양반 사람이 될 걸 꺽패되부런. …… 종년이 쌍년 이랏주. 전의 옛날은 쌍년이난 종년안티 강 호난 홍길도이 엔 혼 사름이 나난 …… (「대계」 9-3 719쪽)

위의 예문은 앞에서 살펴본 탄생담에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허탈한 듯, 내뱉는 듯 ‘꺽패가 되부런’ 하면서 아쉬워하고 있다. 홍길동이 만일 정실의 부인에게서 태어났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인데 천박한 첩의 몸에서 태어났으므로 꺽패가 되었다고 한탄한다. 첩을 ‘종년’과 ‘쌍년’이라는 다소 부정적이고 천박한 용어로 규정하고는 이러한 여성의 몸에서 태어나면 신분과 인성이 천박해진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에서도 드러난다.

㉡ 그 홍좌수의 아들인데 홍좌수가, 그러니까 이제 그 좌수라는 사람이,

이 좌수라는 벼슬이 이제 이 읍, 읍에서 거시기, 인제 읍에 인제 그 사또 밑 구녕에 있는 사람이거든(『대계』 1-8 163쪽)

소설 속에서 길동의 부친은 승상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는 고을 원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좌수로 그 신분이 강등되어 나타난다. 이후 태몽을 포함한 탄생담은 소설과 거의 동일한 내용과 구조로 나타난다. 이 이야기의 내용만을 통해 본다면 길동은 시골 아전의 신분을 가진 부친과 그 아전의 종이면서 첩이 된 여자를 모친으로 두게 된다. 그러나 영웅의 기상을 갖고 태어났으므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집안에서의 갈등으로 인해 가출한 후 도둑질을 하면서 살아간다. 왕이 “너 이 좌수의 아들로서 그 으특에 되서 니가 도적놈의 괴수가 됐느냐?”라는 질문에 호부호형도 못하고,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도 못 받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대신 해서 나가서 헐 거이 없어서 도적놈의 괴수가 됐슈다”라고 대답한다.

소설 속에서 묘사되는 활빈당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도적질이 전개된다.

㉔ 난 해볼 것두 없구 그러니까 부하들을 모두, 공부하던 애들을 모두 데리고 땡기면서 저 함천 해인사 같은 큰 절에 가서 철걸 떨어다가 즈가 먹고 살아 아 이지경을 하니깐……(『대계』 1-2 178-179쪽)

㉔에서 길동의 부친을 설명하는 가운데 그의 신분을 ‘사또 밑구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길동을 ‘도적놈’, 혹은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과 활빈당 활동을 ‘도적질’ 혹은 ‘도둑질’로 표현한다는 사실을 소설 속 홍길동의 행적과 비교해 본다면 매우 비하하는 측면이 보인다. 이는 ㉔에서 홍길동의 행적을 깡패질로 묘사한 것과 위에서 제시한 ㉔의 내용 역시 동일한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홍길동전』이 설화화를 거치면서 주인공의 출생과 신분 및 행적에 있어 비하된 측면이 많이 보인다.

4.3. 변신의 서사화

「홍길동전」에서 變身談은 소설의 전반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길동의 능력을 발휘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된다. 특히 이러한 變身은 장난기가 섞여 있으며, 貪官汚吏나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홍길동의 능력을 보여주고 흥미를 더해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의적담이나 갈등담 및 건국담에 비해 「홍길동전」에서 소설을 이끌어가는 요소와 주제를 형성하는데 있어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이에 비해 「대계」에 채록된 홍길동이야기에서는 변신담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

㉠팔도에 모두 홍길동이 나타나서 잡혀 온다는 내용과, 쇠사슬로 묶어 놓았는데 옷만 남기고 등선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파리로 변신해 잡히지 않는다는 내용과 활빈당 200명 모두가 홍길동으로 변한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팔도에 모두 홍길동이 등장해서 자신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부분과 초인이 변해서 홍길동이 되는 장면 등이 등장한다.(변신술이 중심이 아님)

㉣술병 속으로 숨어 들어가 버리자 술병을 마루에 던져 깨니 여덟 조각으로 깨지고는 모두 길동으로 변해 자신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초인을 만들어 홍길동으로 변하게 하고는 자신이 진짜라고 주장하기도 하며 판에서 잡아 처형하고 보면 결국 초인임이 밝혀지는 장면이 등장한다.

㉥초인으로 만들어진 홍길동이 팔도에서 잡혀 와 자신이 진짜 홍길동이라고 주장하는 장면과 모기로 변해 목침 구멍 속으로 들어가 죽는 장면이 등장한다.

위의 예문은 변신담이 등장하는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이야기에서 변신담은 등장한다. 그리고 그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모두 국가를 혼란하게 한 후 잡히게 되는 과정에서 변신담이 등장하

고 변신술을 이용해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는 「홍길동전」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며 소설 속에 없었던 내용이 추가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변신담은 소설 속에서의 비중 보다는 설화화 되면서 이야기의 중심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연자는 이러한 「洪吉童傳」에 등장하는 신기한 變身談을 통해 貪官汚吏나 임금 혹은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골탕먹이는 장면을 주로 다루고 있다. 1980년대 초 당시 홍길동이야기를 구연한 사람들은 대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다. 이들 보다 바로 앞선 세대에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탐관오리를 비롯하여 자신들을 억누르고 착취하는 세력에 대항할 어떠한 힘도 없었다. 세력을 모아 대항하더라도 결과는 실패로 끝나고 후유증은 엄청났다. 19세기 말까지 전국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봉기와 갑오농민전쟁까지도 민중을 억누르고 있었던 세력을 懲治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후 바로 일제의 강점기로 접어들었고 이 시대 역시 억압의 주체는 바뀌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홍길동전」의 주인공 길동은 달랐다. 탐관오리를 懲治하고 부당하게 모은 財物을 탈취하여 민중들에게 나눠준다. 국가의 手配수에도 자유로웠다. 어느 누구도 길동을 잡을 수가 없었고, 심지어 임금까지도 농락당한다. 길동이 이럴 수 있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자신의 몸을 바꾸거나 숨길 수 있는 變身術 덕분이었다. 이러한 변신이라는 기이성이 흥미로움으로 수용되었고, 그럴 수 없었던 독자들에게 상당한 대리만족을 느끼게 해 주었으며, 심지어는 통쾌함을 주는 요소로 충분했다.

5. 「홍길동전」 설화화의 의미

자료를 검토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홍길동이야기’는 독서의 결과로 기억하고 있는 부분을 구연하는 경우와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듣고 기억한 내용 그리고 방송 매체를 통해 접한 내용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설화화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작품 및 문헌설화의 창작과 이본의 필사 등과 같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기억된 것이 아니고 간접 경험을 한 구연자들에 의해 이야기가 재구성된 것이다. 따라서 「홍길동전」이 설화화 양상에는 구연자 나름대로의 의미가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첫째, 구연자들에게 「홍길동전」은 전반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왕조를 부정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이야기', '지하국대적을 퇴치하는 기이한 이야기' 등과 같은 요소 보다는 삶의 현장에서 쉽게 접하면서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에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절반의 서사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랜 세월 누적된 신분제의 모순'·'종교의 타락'·'권력에서 나타나는 부정부패'·'백성들과 밀접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백성들의 상황과는 동떨어진 지방관청의 행태'·'백성들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의 정체성' 등과 같은 다소 현실성 있는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더 중요했으며, 작품 속에서 구성된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고 타파하는 길동의 행동이 더욱 큰 문학적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둘째, 소설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캐릭터가 의도와는 달리 독자들에게는 반대의 의미로 읽혀지기도 한다. 비하의 서사화 과정을 거치면서 홍길동의 신분이 천박하게 묘사되고,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므로 길동의 인격 및 행위에 대한 평가가 비하된다. 심지어 사회적 의식과 백성들을 위한 활빈당 활동 역시 '도둑질'이라는 범법행위로 묘사되고, 길동의 저항 역시 깡패질로 묘사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볼 때 「대계」에서 홍길동 이야기 구연자들에게는 처첩의 문제에 있어 첩은 천박하다는 인식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그들의 기억에서 주체의식과 관련하여 길동의 행위를 컨텍스트(context)적 맥락에서 이해하지 않고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각 종 장면을 단순하게 이야기의 소재적 측면으로만 이해한 결과로 보인다.

셋째, 「홍길동전」에서 나타나는 변신담은 독자들에게 대리만족을 주기

도 한다. 변신담이 서사화 과정을 거치면서 홍길동이야기의 중심이 된다. 변신이라는 것은 자신이 도달할 수 없는 상황이나, 불가능하지만 가장 갈망하는 존재로 향한 욕망이 강했을 때 상상이나 혹은 환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자신의 욕망과 동일시화 하여 대리만족을 추구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홍길동이야기에서 변신담 수용의 특징은 동일한 자기복제를 통해 또 다른 자신을 재생산하는 변신담이 모두 등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른 화소들과는 달리 유독 이 부분만은 채록된 홍길동이야기의 전편에 등장한다. 어떤 위기 상황이나 불안함이 공포의 순간으로 바뀔 때 이를 극복하려는 방어기제가 필요며, 이때 동일한 특징을 지닌 자신이 여러 명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화 하기도 한다.

說話는 주인공, 혹은 그와 관련된 사건만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단순한 상황에서 전개되며, 과장이 심하다²⁶⁾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洪吉童傳」을 읽는 독자들은 가상의 공간에서 가상의 존재를 통해 대리만족감을 가지면서 심리적 위안을 받았던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集中化가 이루어졌으며, 또 한 편의 설화로 재창조될 때 자연스럽게 수용된 것이다.

6. 결론

앞에서 논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소설이 설화화 될 수 있었던 문화적 환경으로는 소설 독자의 꾸준한 증가, 소설의 오락화를 통한 구전 유통, 구할자본 고소설의 상업화 속에서 책을 팔기 위한 작품의 구연 현상,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나타나는 고소설의 구연 현상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환경은 소설이

26) 조동일, 「『임진록』에 나타난 김덕령」, 『민중이야기』, 문예출판사, 1992, p74.

설화화 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채록된 「홍길동전」 관련 이야기는 모두 6편이 실려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 결과 독서를 통해 기억된 이미지의 구연과 홍길동이야기가 구전으로 유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6편의 홍길동이야기를 바탕으로 「홍길동전」의 설화화 양상을 고찰한 결과 첫째, 소설의 전반부에서 나타나는 비판과 풍자의 서사를 수용하였지만, 후반부의 중심이 되는 영웅성을 담보한 거부와 건국의 서사는 완전히 생략되어 기억에서 잊혀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 조선을 떠나 섬으로 가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 망당산에 약초를 캐러 갔다가 울동을 물리치고 여자들을 구한 후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이야기, 울도국 정벌 등 영웅성을 바탕으로 한 거부와 건국의 서사는 고소설 「홍길동전」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과정에서 배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홍길동전」의 화소들 일반인들의 일상적인 삶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중요했음을 보여준다. 둘째, 몇몇 이야기에서 홍길동의 신분과 활빈당의 행적이 비하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소설 「홍길동전」의 주제의식과 관련하여 길동의 행위를 컨텍스트(context)적 맥락에서 이해하지 않고 단지 ‘도둑질’이라는 범법행위 자체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셋째, 모든 홍길동이야기에서 변신술을 모티프로 한 변신담이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변신이라는 기이성이 흥미로움으로 수용되었고, 그럴 수 없었던 독자들에게 상당한 대리만족을 느끼게 해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대계」에는 「홍길동전」과 관련된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다른 고소설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채록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들 전체를 다룬다면 근현대인들에 의한 고소설의 설화화 과정 및 양상을 비롯하여 수용양상까지도 종합적으로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은 과제로 둔다.

- 핵심어: 홍길동전, 설화화, 홍길동이야기, 구전유통, 변신담, 대리만족

<참고문헌>

- 권순궁, 『「洪吉童傳」의 受容樣相과 時代的 意味』, 成均館大學校 國語國文學科 碩士論文, 1983.
- 노영택, 『日帝時期의 文盲率 推移』, 『韓國史館論叢』 51집, 國史編纂委員會, 1994, p.125.
- 송성욱, 『「홍길동전」의 磁場』, 『聖心語文論集』 22집, 카톨릭대학교 國語國文學科, 2000.
- 이기우·임명진 옮김, 월터 J. 옹 지음,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文藝出版社, 1995, p.106.
- 이문규, 『洪吉童傳』, 『黃湜江 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Ⅱ 古典小說研究』, 一志社, 1993, pp.667~678
- 이원주, 『고전소설 독자의 성향 :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3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75.
- 임형택, 『18세기 「이야기문」과 小說의 發達』, 『韓國學論集』 2, 啓明大學校, 韓國學研究所, 1975.
- 조동일, 『「임진록」에 나타난 김덕령』, 『민중이야기』, 문예출판사, 1992, p.74.
- 조희웅, 『조선후기 문헌설화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1, pp.103~106.
-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도서출판 푸른역사, 2003, pp.114~115.

<Abstract>

The aspects with which <A life of Honggildong> had turned to a tale

Kang Moon-jong

The examples of cultural elements that can make a novel into a tale are as follows: steady increase of novel readers, novels' transmission and spread by word of mouth in the character of entertainment, prevalent oral narration that is intended to sell books in the commercialization trend of old typed old novels, a trend to narrate old novels on mass media (ex. radio). Above cultural environments had an effect on novels to become tales.

In 『An outline of Korean oral tradition literary (韓國口碑文學大系)』, there are six Honggildong stories related <A life of Honggildong(洪吉童傳)>. Upon investigation of those six stories, it was revealed that Honggildong stories and the images memorized by reading had been narrated orally.

Based on the six Honggildong stories, this study examined the aspects with which <A life of Honggildong> had turned to a tale. First, the earlier part contains criticism and satire while the latter part completely omitted heroic great wealth story and nation founding story. It means that what, from the materials of <A life of Honggildong>, had something in common with common people's routine life were of importance. Second, some stories depreciated Honggildong's birth and the deeds of Robin Hoods band. It is because that people understood the deeds of Honggildong as only a illegal act itself, or theft, not in a

context related to the subject of novel <A life of Honggildong>. Third, every story accepted his transformation anecdote. Eccentricity of transformation was taken as interest and transformation anecdote gave substitute satisfaction to readers.

- Key Words: A life of Honggildong, turning to tale, Honggildong story, transmission and spread by word of mouth, transformation anecdote, substitute satisfaction

* 이 논문은 2009년 2월 1일 투고되었고, 2월 20일 심사 완료되어 2월 23일에 게재 확정되었음.